

祝 辭

국내의 법학 연구자 그리고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본인은 본교 법학연구소가 개최하는 『법학과 사회과학: 학제 연구방법론의 모색』이라는 제하의 국제학술 세미나에 즈음하여 축사를 행하게 된 것은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세미나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최대권 법학연구소장 및 연구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이번의 행사를 위하여 미국과 일본에서 내방해 주신 마틴 샤피로 교수와 타나세 타카오 교수에게 우리 학교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너무나 유명한 법언이 말해 주듯이, 법은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이 점은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법학을 연구함에 있어 다른 사회과학의 분과들과의 연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법학자들은 다른 사회과학과 절연된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회현실에서 유리된 “개념의 천국”에서 지내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법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법조계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 또한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학술행사를 본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의 국제학술 세미나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의 장을 제공하고 아울러 기존의 방법론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됨으로써 한국의 법학교육 및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 아울러 이 세미나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향후 교류·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0. 10. 28.

서울 大 學 校 副 總 長
宋 丙 洛